

2022 부활주일

부활! 리포지셔닝 되다. (성도에게 회복된 권능)

1. 포지셔닝

포지셔닝(Positioning)이란? 마케터에게 가장 익숙한 마케팅 용어이다. ‘하나님의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회사를 소비자들의 인식 속에 특정한 이미지로 자리 잡게 하는 일, 또는 전략’을 말한다. 즉, 제품의 정체성을 사람들의 마음에 인식시켜 자리잡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포지셔닝’ 해주셨다. 사람을 정의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그래서 엄청난 것이다. 강조해도 중요하다. 이런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타락했다. 그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모두 깨진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죄인’이 사람의 정의가 되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상실한 존재가 되었다. 이런 사람을 다시 원형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으로 깨어진 옛 자아의 형상을 십자가 못 박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다시 부활하셨다.

2. 부활 - 리포지셔닝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삶에 무엇을 가져왔는가? 무엇이 달라졌는가? 다시 보자. 한 마디로 말하면 ‘리포지셔닝’이 일어난 것이다.

리포지셔닝(Repositioning)이란, 소비자 욕구와 경쟁,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제품이 갖고 있던 포지션을 분석해 새롭게 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리포지셔닝은 기존 제품의 포지션의 회복을 넘어, 현재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 살아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생명을 다시 불어넣는 것과 같다.

부활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강력한 리포지셔닝이 일어난 것이다. 부활 후 예수님의 위치는 어디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위치에 대하여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부활 후 예수님의 위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리포지셔닝 되신다.

[히브리서 1:3]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8:1]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 10:12]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보좌는 왕을 상징한다. 가장 강력한 통치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원래대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계신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후 모습이다. 잊지 말아야 한다.

3. 부활 후 성도의 위치

[에베소서 2:5-6]

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성도의 위치는 어디인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다.

반복의 말씀은 무엇인가? 나와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함께이다. 함께 살리셨고 / 함께 일으키셨고 / 함께 하늘에 앉힌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부활 후 내가 어떤 존재로 리포지셔닝 되었는지 알아야 한다.

[로마서 8:35-39]

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6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음을 확인하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오늘 나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4. 이기는 존재로의 부활

[요한계시록 3:2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기는 존재이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부활은 이기는 존재로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 후 사도행전 1:8절의 약속대로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리포지셔닝'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태생 때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을 일으킨 것이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내가 지금 하늘 보좌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회복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제 저주를 끊어내고, 지옥의 문을 닫고, 생명의 문을 열며, 하늘의 능력을 풀어 낼 수 있는 권세있는 존재로 회복되었다.

오늘 내가 어떻게 리포지셔닝 되었는지 알아야 한다. 이제 내가 서 있는 부르심의 자리에 다시 굳건히 서라. 그리고 하늘의 권능을 기도로 덧입으라. 기도하면 풀어주신다. 하늘의 능력을 사용하는 존재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선포하자. 말씀 안에 회복된 존재인 나를 보자. 아멘.